



향일여성

10호 | 2021년 3월 발간



조선 최초의 볼셰비키 사회주의 혁명가 김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1885~1918)

본회

소장 신영숙

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 김!

김씨 성 대신 스타нке비치
로도 불렸다.
러시아인 첫 남편 성 따라

알렉산드라는 1885년
러시아와 한국의 경계
연해주 우수리스크
한인마을에서 태어나
러시아 혁명에 참가한
최초의 한인 볼셰비키

함북 경흥(경원)에
1869년 대흥수 흥년 들자
두만강 건너
러시아 연해주로 간
아버지 김두서(金斗瑞) 그
는 농부가 아니라 한중일
어를 아는 인텔리였다

어려서 어머니 잃고
1896년 만주 철도 건설현
장 통역관 아버지 따라 보
고 배우던 알렉산드리아
버지마저 하늘나라로 열
살 소녀 때
아버지 친구 M. I. 스타케
비치에게로.

블라디보스토크의 여학생들
체르니셰프스키 등
읽으며 사회주의 공부
역사와 사회 문제에 공감
러시아인 동료는
“검정치마 흰저고리
깔끔히 빗어 땀은 머리
대단히 붙임성 있고
쾌활했던 그는 나중에
영웅이 되었다”고
기억하였다

16세에 동창 스타케비치와
혼인탕자가 된 남편을 떠나
아들 데리고 재혼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으나
1914년 다시 멀고 먼 길로
우랄지방 벌목장 통역관
되어

우랄노동자동맹 조직

조선인 중국인 러시아인
국적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 인권을 대변
1917년 2월 혁명 때
짜르정부가 지불하지
않은 노동자의 임금을
받아줬다

레닌의 사회민주노동당
입당
극동지방 조선인 조직사업
책임 다시 돌아간
연해주에서 ‘조선인민의
자랑스러운 딸’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지방
대표자회의 참가

하바로프스크시 당 서기로
소비에트 건설에 힘쓰고
극동인민위원회 외무위원
하바로프스크의 영웅이
되었다

이동휘와 김립과
1918년 하바로프스크
한인사회동맹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조직 반일반제 노선 강령의
한인사회당 만들어
연해주와 아무르주
한인 사회의 등불
기관지 「종」 발간
교육 조직 선전 활동

일본 해군 러시아 상륙에
미·영 프랑스 연합국 간섭
반혁명 코사크 백위군
반격

하바로프스크 적군파
위기에 조선인 적위군으로
싸우다 아무르(흑룡)주로
피신 중 체포, 총살되는
참극

조선인 볼셰비키로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가 조선의 자유와
독립의 길임을 깨치고
당당히 투쟁

34세 젊은 나이에
아무르강으로 의연히
순국하였다 일찍이
가정을 떠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힘없고
고단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조선의 해방을 위해
온몸을 희생한
그 이름

혁명가 김알렉산드라!
애국장으로 공훈 받고
한국여성독립운동사에
일획을 그은 큰 인물로
길이 남으리라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목차

- 02 조선 최초의 볼셰비키 사회주의 혁명가 김알렉산드라 페트로브나(1885~1918)
본회 항일여성독립운동연구소 소장 신 영 숙
- 04 인사말 이사장 김희선
- 06 항일여성초상화국외전시 ‘피워라(PIORA)’
 - 피워라(Piora) in Newyork
 - 피워라(Piora) in Philadelphia
 - 피워라(Piora) in Washington D.C
 - 항일여성초상화국외전시 “피워라 (Piora)” 영상촬영자 이은성 전시소감문
 - 항일여성초상화국외전시 “피워라 (Piora)” 전시운영 총괄
(주)콤마엔터테인먼트 소감문
- 16 주제공연 <팔녀투강-동북항일연군 8인의 목단강 투신기>
- 17 제3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국제학술심포지엄
<3.1혁명 이후 중국과 만주의 항일여성독립운동>
- 18 2·8독립선언 102주년 기념 항일여성 tv 유튜브 생중계
2·8독립선언과 HER-STORY
- 20 2021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서훈 추서자
- 21 연대 활동
- 22 사업 소식

발행일 2021년 3월 통권 10호 발행인 김희선 편집위원 김희선 노명희 도승이 신영숙 최성자
발행처 (0257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53 (용두동 232-20) 사숙재회관 402호 디자인 인쇄 디자인포인트

- 후원안내 / 회원가입 :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01-0230-6110-11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가입문의 : 전화 02)924-0660 메일 herstory@herstorykorea.org 홈페이지 <http://www.herstorykorea.org/>
 카페 <https://cafe.naver.com/herstory0301>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herstorykorea/>

인사말



이사장 김희선

“비바람 세차고 눈보라 쌓여도
님 향한 굳은 마음은 변할 길 없어라
님 향한 굳은 마음은 변할 길 없어라”

- 독립군 가곡 “님 찾아가는 길”

어느덧 7년이 흘렀다. 창립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두근거림은 여전히 생생하다. 옳은 길을 위해 목숨 바쳐 투쟁하신 여성독립운동가들, 그분들의 정신을 지금 여기에 선명히 살려내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기획해야 할까, 치열하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행동했다.

법인체 등록부터 쉬운 일이 없었다. 걱정 어린 말씀도 많았다. 하지만, 독립 이후 70년이 지나도록 역사에 묻혀있던 여성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기억하고 후세에 알리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때였다. 우리가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일단 시작하고 봐야겠다 생각해서, 우선 간판부터 준비했다. 신영복 선생님께 현판 글씨를 부탁 드렸더니, 놀랍게도 큰 간판 뿐 아니라 사무실 용, 책상 용까지 고루고루 네 종류로 보내주셨다. 병마와 싸우고 계신 중에 써주신 글씨라는 것을, 나중에 그분의 장례식장에서야 알았다.

그 마음이 서린 간판을 오늘 건물 입구에 서서 다시 한번 찬찬히 보았다. 고마운 분들이 참 많았다. 그동안 함께 발걸음해주신 회원분들의 마음이 겹쳐 떠올랐다. 힘을 내어 계단을 오른다. 지난 한 해도 는 열심히 달려왔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다.

신념과 열정으로 살아가신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얼굴! 지난해 10월 9일부터 21일까지 <항일여성초상화 국외전시사업 - 피워라>가 미국의 주요 도시 - 뉴욕 10월 9일-11일, 필라델피아 10월 14일-16일, 워싱턴D.C 10월 19일-21일 진행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

사업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격려와 참여가 있었다. 계획대로 진행된 것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도움이 크다. 특히 워싱턴D.C 민주평통 이재수 회장님과 간사 박준형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기획과 진행을 맡은 송형종 전 대표의 수고와 연출과 공연을 준비하신 이민재 미디어위원장 두분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언제나 숨죽이게 하는 양혜경 선생님의 녀전 춤과 유효진 뮤지컬 배우님의 독창은 관객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가져왔다. 이러한 것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분들의 혼을 가슴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

사실 해외전시는 오랜 준비와 노력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먼 곳까지 와서 전시할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서,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교민 분들을 뵈었다. “와, 여성독립운동가 분이 이렇게 많으셨나요?”라는 익숙한 놀라움도 만났다.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부족했던 점은 반성하면서 다음의 더 나은 기획을 꿈꾼다. 해외 다른 지역에서도 꼭 전시해달라는 격려를 잊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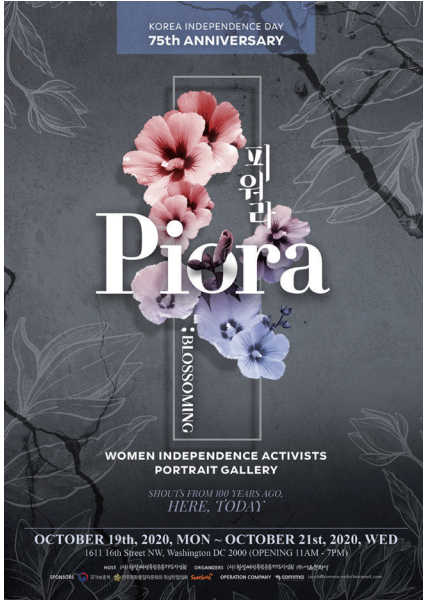
가를 기리는 동상들도 꾸준히 세워지고 있다. 지난 호에서 서울 중구 정동 ‘배재어린이 공원’에 이어 충청도 흥례공원에 ‘ ’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다. 8월 5일에는 배화여고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배화여고에 ‘ ’를 건립하고 ‘ ’ 행사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동상들이 세워진 곳들은 모두 독립운동사에서 의미 있는 장소들이다. 앞으로 더 많은 국내외 독립운동 장소에 ‘ ’를 세워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려나갈 생각이다.

역사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항상 함께 있다. 과거는 우리의 현재 안에 깃들여 미래를 만들어간다. ‘ ’의 동상도 그런 의미다. 백 년 전의 여성이 오늘의 교복을 입은 여성에게 등불을 비춰준다. 불합리한 억압을 넘어서기 위해 끝없이 투쟁하며 더 나은 세상을, 밝은 미래를 백 년 전의 여성과 현재의 여성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매순간 역사를 만들어간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의 첫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여성사로 읽는 항일 독립운동』이다. 2년 전 출범한 본회 연구소 신영숙 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원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부족한 자료 속에서도 성실히 노력해온 연구원들이 자랑스럽다. 출판사 <도서출판 항일여성>의 첫 책이기도 하다. 연구자 뿐 아니라 일반여성들에게도 두루두루 다가갈 수 있는 책을 계속 기획할 예정이다.

7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역사의 한 조각을 만들어 오신 모든 회원님들과 이사님들께 깊이 감사 드린다. 우리 단체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은 단지 몇몇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지금이 코로나 시국이라, 만나서 손을 잡기도 어렵고, 뜻을 나누는 이야기를 드리고 함께 배우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지만, 대신 유튜브 채널 항일여성TV 등 지속적인 소통의 방식을 고민하고 있으니 관심을 부탁드린다. 소의 해를 맞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는 소처럼 우직하고 성실하게 우리 모두의 뜻을 이어 길을 내어가겠다. 깨어있는 눈으로 함께 전진하겠다.

항일여성초상화국외전시 **피워라(PIORA)**



항일여성독립운동가 그녀들의 이름으로 오늘을 이야기하다

() 는 광복 75주년을 기념하여 미국 주요 3개 도시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에서 항일여성초상화국외전시 '피워라(PIORA)'를 개최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 전시회는 조국 독립의 투쟁의 역사 속에 함께 피 흘리며 싸웠던 잊혀진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전시된 75점의 초상화 중 6점은 본 사업회에서 지난 8월에 시행된 제1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초상화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들의 초상화를 전시해 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EXHIBITION NEWYORK BROOKLYN

734 Nostrand Avenue
Brooklyn NY 11216
OCTOBER
9th 2020, FRI ~ 11th.
2020, SUN
OPENING 9AM-5PM

10:00
Greeting & Performance
[Spritual Dance]
11:00
Activists Introduction
13:00
Overseas Conference

14:00
Greeting & Performance
[Musical Song]

EXHIBITION PHILADELPHIA

990 Spring Garden St 1st Floor,
Philadelphia, PA 19123
OCTOBER
14th.2020, WED ~ 16th.2020, FRI
OPENING 11AM-7PM

10:00
Opening Ceremony
11:00
Greeting & Performance
[Spritual Dance]
12:00

Activists Introduction
14:00
Overseas Conference
15:00
Greeting & Performance
[Musical Song]

EXHIBITION WASHING D.C

1611 16th Street NW,
Washington DC 2020
OCTOBER
19th.2020, MON ~ 21st.2020, WED
OPENING 11AM-7PM

10:00
Opening Ceremony
11:00
Greeting & Performance
[Spritual Dance]
12:00
Activists Introduction

14:00
Overseas Conference
15:00
Greeting & Performance
[Musical Song]

미국전시회 취지문

우리는 8.15 광복 75주년 맞아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그 숨결이 우리의 가슴에 성큼 다가옴을 느낍니다. 우리의 선열들은 일제불의 억압에 맞서 과감히 떨쳐 일어나 나라의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인간의 평등과 평화로운 공전을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선열들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기회의 균등에 바탕을 둔 민주공화국을 선포하여 세계의 민족민주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선열들은 인간 평등사상을 중심으로 민주 사회 건설로 고통과 억압, 불의와 차별을 없애고자 끈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국권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분단이란 아픔은 아직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주권이 바로 서고 모든,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사는 나라! 각각의 민족들이 평화롭게 공전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꿈같은 과제!

이 엄청난 과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극히 적은 노력 하나로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를 조직하여 그 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문화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의 하나로 "오늘 그들 여기에" 한국의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초상화를 전시합니다. 사람의 정의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가 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빛나고 있는가를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일여성초상화국외전시 **피워라(PIORA) in Newyork**

| **일시** 2020년 10월 09일~11일 | **장소** 734 Nostrand Avenue, Brooklyn NY 11216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로서 미국의 상업·금융의 중심지이자 경제적 수도이며 수많은 대학·연구소·박물관·극장·영화관 등 미국 문화의 중심지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다. 또한 1921년에 창립돼 한반도 해방 전후 한 인회와 학생회 국민회, 흥사단 등 각종 단체들의 집회와 임시 거처로 활용된 뉴욕 한인 교회가 자리하는 등 우리나라 독립운동과도 인연이 깊은 도시이기에 항일여성초상화국외전시 '피워라(Piora)'의 첫 번째 도시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날 전시회에 찾아주신 파독 간호사 출신 뉴욕 현지 교민 김자원씨는 손수 자작 시를 지어서 직접 낭독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거룩한 님의 삶을 기립니다

- 피워라 독립운동 여성분들께 김자원

인생사 희로애락은 접어두었소
일제하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허상
삶의 가치는, 생의 목적은, 독립된 국가
맞이하는 일
허기진 배도 아랑곳없소. 이별의 처절함도 개의치 않소 앞
서서 독립의지 다진 이들의 피 끓는 염원
조금이라도 받쳐 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리라.
팔 걷어붙이고 주역이 되신 님들이시여!
당신들의 힘겹고 고달팠던 삶

독립의 꿈 불빛이 되어 애달게 애달게 끌어 오셨지요 이름
은 뒷전에 생색도 뒷전에 오직 한 마음, 내 나라 독립
무지한 위정자들이 밀쳐둔 그 역사의 뒷전에 잊을뻔한 님
들의 삶
혹독한 생, 가름에 밝은 꿈 지켜오며 독립의
그날까지

나는 없고 독립만 함께 했지요
더불어 살아가고 내가 아닌 우리로 살아오신 님들이시여
눈 뜬 이들의 마음이 님들의 생애 정리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 미국 뉴욕까지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가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님들 모습! 우리 가슴에 식어가는 애국심.
가슴 설레어 출렁이게 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 보냅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 10월 11일 뉴욕에서



전시회를 준비하는 송형중 운영위원장



전시회전 리허설



양혜경 위원장의 뉘전춤



양혜경 위원장, 유효진 배우 합동 추모공연



전시회 관람하는 모습



전시회 관람객



전시회 운영팀과 단체사진

항일여성초상화국외전시 **피워라(PIORA) in Philadelphia**

| **일시** 2020년 10월 14일~16일 | **장소** 990 spring Garden St 1 st Floor, Philadelphia, PA 19123



필라델피아는 펜실베이니아주의 가장 큰 도시이며 미국 독립 운동의 근원지이며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장소다. 1919년 한국의 3.1운동 소식이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했던 도산 안창호에게 전해진 후 미주 한인들을 결집한 1차 한인 회의가 열렸던 리틀 극장이 있는 곳이기에 항일여성초상화 국외전시 ‘피워라(Piora)’의 두 번째 도시로 선정하였다.

이날 전시회에는 데릴 클라크 시의회 의장이 자신이 직접 서명한 감사패를 이민 2세 데이비드 오 시의회 의원을 통해 전달하며 미국의 독립정신과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전시회를 통해 재조명해준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이종섭(주 필라델피아 영사), 한고광(필라델피아 민주평통 회장), 사론 황(필라델피아 한인회장), 이주향(미 동부 한인회 연합 회장), 성티나(대 남부 뉴저지 한인회장), 김은진(델라웨어 한인회장), 최성수(서재필기념사업회 재단 이사장) 등 필라델피아 및 인근 다섯 개 주의 동포 대표들이 대거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피워라(PIORA) in Philadelphia

항일여성독립투사들의 발자취를 알리고 기리는 이번 전시회의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David Lee -

어제 신문 보고 꼭 와서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뜻 깊은 전시회 감사합니다.

- 심영주(독립유공자협회), 서혁교(NAKA · 미주동포전국협회) -

Piora 항일여성독립운동가 필라델피아 미국 전시회를 환영합니다. 역사적인 지역에 역사적인 전시회를 대 필라델피아 동포 사회가 모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론 황(필라델피아 한인회장) -



전시되어가는 초상화



전시회 준비가 끝난 전시회장



입장 전 발열체크



추모곡 여성독립운동가의 길 - 유효진



감사장을 전달하는 데이비드 오 시의원



전시된 초상화를 관람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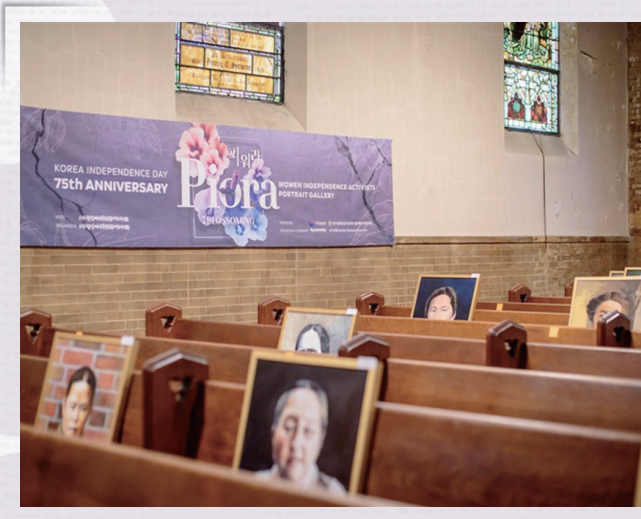
관람객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민재 위원장



단체사진

항일여성초상화국외전시 **피워라(PIORA) in Washington D.C**

| **일시** 2020년 10월 19일~21일 | **장소** 1611 16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0



워싱턴 D.C는 1790년 미국의 수도로 지정되었고, 국회의 사당 백악관이 위치해 있는 미국 입법·행정·사법부의 중심지이다.

서재필·이승만·정한경이 대한민국임시정부 한국대표단 자격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했던 곳이며 1919년 6월 6일 매소닉 템플에서 개최한 대중집회에서 한국의 독립을 만장일치로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 한국친우회가 설립되어 미국의 주요 지도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친한 여론을 조성하는데 앞장선 곳이다.

워싱턴 D.C 전시회에는 권세중(워싱턴 한국대사관 총영사), 이재수(워싱턴 민주평통 회장), 이태수(메릴랜드 한인회장), 여성독립운동가로 4·6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현숙 선생의 증손녀 노명화씨가 가족과 함께 참석하여 이번 전시회의 그 의미를 더욱 빛내 주었다.

피워라(Piora) in Washington D.C

“그 옛날 독립운동하면 주로 남성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여성들도 이렇게 많다는 것을 오늘 새삼 알게 됐다. 유관순 누나 못지않은 훌륭한 인물들이 상당히 많은 것에 놀랐다”

- 전시회 방문객 김영수 씨 -

“100년 전 송고한 희생을 치렀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정신과 희생, 삶을 표현하고자 기획했다”며 “워싱턴D.C 는 미국의 도시이자 세계 정치의 중심지다. 이 중요한 도시에서 전시회를 갖는다는 자체만으로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 김희선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



전시되어 있는 초상화



환영인사말을 전하는 이재수 워싱턴 민주평통 회장



양혜경 위원장의 뉘전춤



유효진 배우 추모공연



추모공연을 촬영하는 관람객



전시회를 설명하는 김희선 이사장



전시회 관람객들과



단체사진

항일여성초상화국외전시 피워라(PIORA)

전시소감문

- 영상담당자 이은성 -

미국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 모였던 그날이 벌써 3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보다도 더 힘들어진 상황을 보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미국을 갈 당시에도 주변에서 우려하신 분들도 많았고 미국 전시회 일정을 위해 가는 저희들 역시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해야만 했던 이유도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독립을 위해 한 몸 바쳐 희생하셨던 여성독립운동가분들이 어떠한 특정 상황과 여건들을 고려하며 운동하시진 않았을 거란 생각에, 오히려 그런 상황에 더 부딪히고 싸워 이뤄낸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생각을 하니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하여 미국 숙소(뉴욕)까지 이동하는 데만 총 거의 20시간이 넘게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미국의 땅을 밟아보니 제가 상상했던 미국과는 다른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방역 자체도 뉴스에서 보고 들었던 미국과는 다른 모습이었고, 여러 시민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걱정했던 안전 문제보다도, 코로나 문제로 인해(숙소 측에서 감염의 우려로), 체크아웃하기 전까지는 숙소 청소를 안 해줘서, 그런 부분들이나 인터넷(어떤 공간이든 인터넷이 가능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이용에 조금 불편했던 것 빼고는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전시회는 총 3곳,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 D.C에서 진행하였고, 처음 뉴욕에서 진행할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 길거리를 지나가는 시민들도 별로 없기도 하고, 대한민국에서조차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관련 역사가 생소한 부분이라 걱정도 되긴 했지만, 행사가 시작되고는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한인분들과 민주평화통일 회원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 이국땅에서 같은 한국 사람들과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뜻깊은 일이었는지 지금 생각해 봐도 정말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일정을 보낼 수록 아예 대한민국 항일여성독립운동가분들의 역사를 모르고 계셨던 미국 시민들도 전시회 찾아주셔서 역사에 대해 지켜봐 주시고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모습에 팬스레 부듯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영상 쪽 분야를 맡다 보니 시민분들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한 시민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한국 분이셔서 한국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우연히 지나치다 들어온 이 전시회에서 본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와 항일여성독립운동가분들에 역사를 보니,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지나간 아픈 과거에 대해 누군가는 잊지 않고 세대를 이어 계승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실천해 준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사람과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작년 한 해 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합쳐도 모자랄 만큼 부듯하고 의미 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한인분들에 관심과 도움이 없었다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전시회 일정을 보낼 수도 없었을 겁니다. 타지에서 살고 계신 한인분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주신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될진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미국으로 다시 갈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항일여성독립운동가분들의 사진이 백악관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향일여성초상화국외전시 피워라(PIORA)

전시소감문

- 전시운영 총괄 (주)콤마 엔터테인먼트 -

저희가 진행했던 모든 행사 중에서 가장 어려웠고, 대신 그만큼 보람되었던 행사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국가간 교류가 어려운 시기에 75명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초상화 작품들을 해외로 배송해야 했고, 3개의 도시를 옮겨 다니며 행사 일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사)향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무사히 행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주로 K-pop 콘서트 혹은 기업행사 등 상업적인 행사들을 했던 저희로서는, 광복 75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운동에 힘썼던 여성 운동가들을 기리는 행사를 운영한다는 것이 매우 새로운 경험이었고 의미 있는 행사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전시회는 온라인 홍보만큼, 오프라인 홍보도 중요한데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민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놀랐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회로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했던 삶과 그들의 염원과 희생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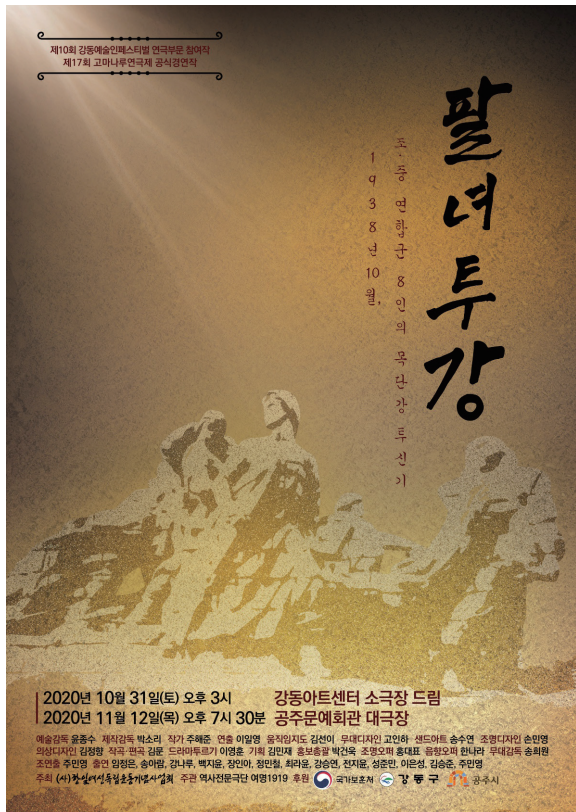
해외 먼 곳에서, 오로지 애국심으로 하나 된 우리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주제 공연

팔녀투강 - 동북항일연군 8인의 목단강 투신기

| 일시 2020.10.31/2020.11.12 | 장소 강동아트센터 소극장 드림 / 공주문예회관 대극장



“만주 조선인 항일여전사
연극으로 재탄생 하다!”

〈 함께한 사람들 〉

작: 주해준 연출: 이일영
 예술감독: 윤종수
 배우: 임정은 송아람 강나루 백지윤 장인아 정민철
 최라윤 강승연 전지윤 김승준 이은성 주민영
 샌드아트: 송수연 무대감독: 송희원
 기획: 김민재 제작감독: 박소리
 조명디자인: 손민영 무대디자인: 고인하
 작곡·편곡: 김문 움직임지도: 김선이
 의상디자인: 김정향 조명오퍼: 흥대표
 음향오퍼: 한나라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고, 극단 여명1919가 제작한 연극 '팔녀투강-1938년 10월 동북항일연군 8인의 목단강 투신기'가 공연에 올랐습니다. 2019년 만주 독립항쟁 역사유적지를 돌아보며 가장 크게 가슴을 울렸던 '목단강 8녀투강비'를 보고 제작된 본 공연은 제10회 강동예술인 페스티벌 연극 부분과 제17회 고마나루 전국연극제에 참가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공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 제17회 고마나루 연극제에서는 무대 기술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우리 항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다방면으로 전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제3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국제학술심포지엄

3.1혁명 이후 중국과 만주의 항일여성독립운동

제3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국제학술심포지엄

3.1혁명 이후 중국과 만주의 항일여성독립운동

2020년 12월 09일 10: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유튜브 항일여성 TV

사회
신영숙(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장

발제
대중과 여성들의 항일독립운동
이숙희(한국외대 강사)
동북항일련군의 조선족 여진사들 - 그들의 역할과 의미
리광민(前 중국 절강철수외국어대학 교수, 역사 연구자)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부부독립운동가
강영심(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동북항일련군 여진사 이재덕(李在德)
강수옥(중국 연변대 인문사회과학원 부원장)

토론
강정숙(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연구원)
이선미(경희대 인문학 관입연구소 연구원)

주최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주관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후원 (주)영진닷컴

* 본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 채널 '항일여성TV'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정책에 항거하며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한 많은 여성들의 활동은 오랫동안 그 의미나 성과를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였다.”

- | 주제 : 3.1혁명 이후 중국과 만주의 항일여성독립운동
- | 일시 : 12월 09일(수) 10:00
-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 취지 |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정책에 항거하며 항일독립운동에 헌신한 많은 여성들의 활동은 오랫동안 그 의미나 성과를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중국, 러시아, 미주 등 국내·외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한 유·무명 항일여성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활약과 정신을 기리고 재평가해 나가고자 중국 연변대학교와 협력하여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앞으로 항일여성연구에 대한 협력연구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국제학술회의를 준비하였습니다.

※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예정일 당시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 자료집을 읽어 보실 수 있도록 게시해두었습니다.

주최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주관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 후원 (주)영진닷컴

제3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국제학술심포지엄

3.1혁명 이후 중국과 만주의 항일여성독립운동

2020년 12월 09일 10: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유튜브 항일여성TV)

사회 신영숙(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장
발제 이숙희(한국외대 강사), 리광민(前 중국 절강철수외국어대학 교수, 역사 연구자)
강영심(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강수옥(중국 연변대 인문사회과학원 부원장)
토론 강정숙(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연구원), 이선미(경희대 인문학 관입연구소 연구원)

* 본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 채널 '항일여성TV'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 대한민국 광복 75주년, 청신리·봉오동전투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중국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중국, 러시아, 미주 등 국내·외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한 유·무명 항일여성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활약과 정신을 기리고 재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서 항일여성 독립운동의 새로운 사례들이 조명되고, 나아가 항일여성연구에 대한 한·중 협력연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희선 드림

제3회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국제학술심포지엄

3.1혁명 이후 중국과 만주의 항일여성독립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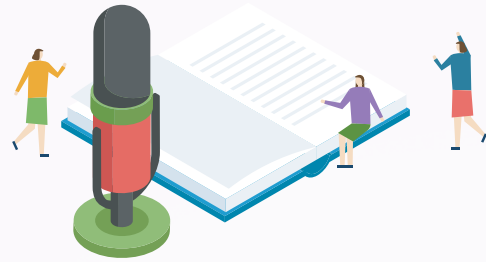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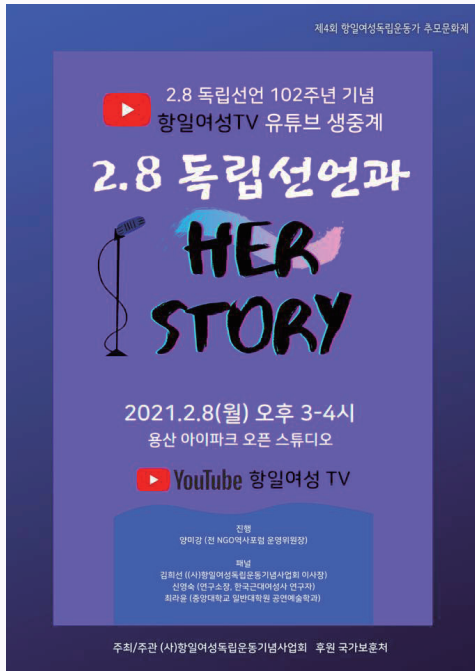
일시 2020년 12월 9일(수) 10:0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유튜브 항일여성TV)

사회 신영숙(사)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연구소장
발제 이숙희(한국외대 강사), 리광민(前 중국 절강철수외국어대학 교수, 역사 연구자)
강영심(이화사학연구소 연구원), 강수옥(중국 연변대 인문사회과학원 부원장)
토론 강정숙(성균관대 동아시아 역사연구소 연구원), 이선미(경희대 인문학 관입연구소 연구원)

INVITATION

▶ 2·8독립선언 102주년 기념 향일여성 tv 유튜브 생중계

2·8독립선언과 HER-STORY



- | **일시** 2021년 02월 08일(월) 15:00 ~ 16:00
- | **장소** 용산 아이파크 오픈 스튜디오
- | **사회** 양미강(전 NGO역사포럼 운영위원장)
- | **패널** 김희선((사)향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신영숙(연구소장, 한국근대여성사 연구자)
최라윤(배우)

2021년 02월 08일, 2·8독립선언 102주년을 기념하여 (사)향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보이는 팟 캐스트 '2·8독립선언과 HER-STORY'를 진행했습니다. 본 팟 캐스트는 양미강(전 NGO역사포럼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 되었으며 김희선 이사장, 신영숙 소장, 배우 최라윤 총 3명이 패널로 참석하여 2·8독립선언 속 여성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얘기하고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향일여성 TV를 통해 처음으로 온라인 생중계되는 이 팟 캐스트를 통해 (사)향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은 행사들이 제한되는 상황이지만 (사)향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향일여성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희생을 알리기 위해 연구하고 행동해 나가겠습니다.

2·8독립선언은
나에게 000이다.

2·8독립선언은 나에게 금지와 자부심이다

- 김희선 이사장

2·8독립선언은 나에게 청춘이다

- 신영숙 소장

2·8독립선언은 나에게 도화선이다

- 최라윤 배우

2·8독립선언은 나에게 도전이다

- 양미강 사회자



“2·8독립선언은 3.1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도화선이 되었던 날입니다.
조선의 남자 유학생들만이 아닌 여성유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3.1혁명일 만큼이나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날입니다“

“황에스더 선생님의 “수레바퀴는 한쪽의 바퀴만으로 달리지 못합니다” 이 발언이 촉진제가 되어 여자 유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해졌습니다. 유학생들은 수업보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 전국을 돌아 다니며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책을 통해서나 SNS를 통해서나 국가관과 역사관이 많이 생기면서 애국심도 올라가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된 것도 저는 그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들로 미루어 보아도 점차 ‘우리의 이야기’인 독립운동에 많은 관심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서훈 추서자

2021년도

가 포상명단

추서연도	인원
2020	21
2021	33
합계	526

순번	성명	한자명	생몰년	운동계열	포상훈격	생존여부	본적	순번	성명	한자명	생몰년	운동계열	포상훈격	생존여부	본적
1	곽영옥	郭永玉	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미상	28	안정송	安貞松	1895~미상	미주방면	애족장	미상	평안남도 평양
2	김귀임	金貴任	1911~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북도 대구	29	양원숙	楊元淑	1911~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함경남도 정평
3	김금록	金錦錄	1912~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강원도 강릉	30	윤신민	尹信民	1901~미상	중국방면	애족장	미상	황해도 봉산
4	김노디	金노디	1898~1972	미주방면	애국장	사망	황해도 곡산	31	윤죽산	尹竹山	1865~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미상
5	김병일	金秉一	1905~1971	중국방면	애족장	사망	평안남도 영일	32	이경선	李景仙	1914~미상	국내항일	애족장	미상	제주도 제주
6	김봉개	金鳳凱	1911~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서울 서울	33	이기숙	李起淑	1913~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서울 서울
7	김성애	金聖愛	1907~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북도 안동	34	이만훈	李晩勳	1906~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서울 서울
8	김용인	金用仁	1902~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평안남도 강서	35	이영자	李英子	1912~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황해도 은율
9	김은주	金恩周	1905~1994	중국방면	건국포장	사망	평안남도 평양	36	이옥진	李玉眞	1908~미상	미주방면	대통령표창	미상	경기도 고양
10	김정성	金貞聖	1886~1944	미주방면	대통령표창	사망	평안남도 평양	37	이정순	李正淳	1911~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북도 옥구
11	남상호	南相好	1890~1936	3.1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충청남도 천안	38	이정현	李貞賢	1909~1990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사망	충청남도 아산
12	노대근	盧大根	1875~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평안남도 안주	39	임배세	林培世	1897~1999	미주방면	대통령표창	사망	강원도 원주
13	노원호	盧元孝	1895~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평안남도 강서	40	임복희	林福姬	1914~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평안북도 의주
14	단양이씨	丹陽李氏	1874~1908	의병	애국장	사망	미상	41	장인식	張仁植	1887~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남도 밀양
15	민연순	閔年順	1911~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서울 서울	42	전그레이스	조그레이스	1882~1948	미주방면	애족장	사망	미상
16	박두옥	朴斗玉	1913~1986	국내항일	애족장	사망	전라북도 임실	43	정순희	鄭順姬	1891~미상	국내항일	건국포장	미상	함경북도 경성
17	박순복	朴順福	1888~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경상남도 진주	44	지경희	池璟禧	1911~미상	임시정부	애족장	미상	함경북도 미상
18	박신일	朴信一	미상~1968	중국방면	대통령표창	사망	평안남도 강서	45	채계복	蔡啓福	1900~미상	노령방면	애족장	미상	함경남도 문천
19	박영옥	朴英玉	1898~미상	3.1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전라남도 강진	46	최경창	崔慶昌	1918~미상	국내항일	애족장	미상	경기도 수원
20	박정경	박정경	1896~1963	미주방면	대통령표창	사망	미상	47	최능인	崔能仁	1903~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평안남도 강서
21	박정인	朴貞仁	1912~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함경북도 부령	48	최봉원	崔鳳元	1899~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평안남도 강서
22	박치은	朴致恩	1880~미상	국내항일	애족장	미상	평안남도 강서	49	최이선	崔二善	1912~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미상
23	박혜경	朴惠敬	1899~1947	미주방면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나주	50	최풍오	崔豊五	1913~2002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완도
24	서귀덕	徐貴德	1913~1969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담양	51	하상기	何尙祺	1921~미상	독립운동지원	건국포장	미상	외국 중국
25	신성녀	申姓女	1853~미상	3.1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충청남도 천안	52	한태은	韓泰恩	1920~2006	광복군	애족장	사망	경상북도 대구
26	신옥봉	申玉鳳	1914~1935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사망	전라남도 고흥	53	현덕신	玄德信	1896~1962	국내항일	건국포장	사망	경기도 수원
27	신윤선	辛潤善	1911~미상	학생운동	대통령표창	미상	강원도 원주	54	홍종례	洪鍾禮	1919~미상	국내항일	대통령표창	미상	경기도 수원

항일여성초상화국외전시 피워라(PIORA) 현지 교민 간담회



이재수 워싱턴 민주평통회장, 박준형, 워싱턴 민주평통 간사와 기념사진



김희선 이사장과 황사론 필라델피아 한인회 회장

필라델피아 서재필 기념관 방문



한고광 필라델피아 민주평통 회장과 김희선 이사장



서재필 기념관 앞에서

필라델피아 리틀극장 앞 추모 퍼포먼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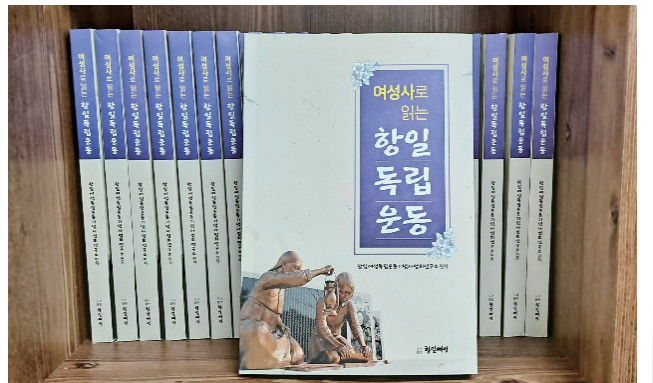
독립운동가 어록 외벽전시



3·1혁명 여성독립운동가 명단 전시



도서출판 항일여성 '여성사로 읽는 항일독립운동' 출간



항일여성초상화국외전시 피워라(Piora) 도록 발간



“ 가들의 100년 전의 합성 그대들을 기억합니다, 여기에”

♡ 정 회원 ♡

강성종 강정숙 고희주 김경미 김경순 김병수 김보영 김복순 김삼열 김서경 김성태 김성훈 김수미 김애영 김연옥 김옥미 김옥순 김옥이 김운채 김지희 김진현 김태관 김행자 김현숙 김희선 남궁련 남상만 남성현 노명희 노영숙 노우숙 노은미 도승이 류효안 명 진 문인숙 문인철 민향선 박국호 박삼규 박선우영 박소리 박영순 박윤옥 박은희 박정철 박정희 박제성 박진호 박창식 박태균 박해숙 방국진 방승환 방지영 배우진 서병남 성세정 성현진 손태수 송보경 신명화 신영숙 심소라 안광진 안성례 안재준 안혁하 양미강 양혜경 오세홍 오여주 유인경 유창우 유하영 윤인지 윤현식 이경순 이규영 이문석 이미희 이민석 이민재 이성구 이성철 이승환 이은경 이은주 이재희 이정기 이정원 이진석 이진숙 이창민 이항중 이현민 이현주 이효식 임동건 임수빈 임쌍금 임은순 임정희 장병화 전형진 정민우 정용설 정원채 조정식 차영조 천신애 최광호 최병일 최성자 최순례 최영환 최윤정 최은규 최재호 최정순 한의성 함 진 홍미영 홍충선 황수환 황은혜 황정원

〈 준 회원 〉

강영준 곽유진 김경옥 김광준 김명주 김숙정 김순단 김우진 김일옥 김종진 김지희 김진후 김찬수 김창한 김태녕 김현태 김혜라 김호근 나유진 노다니엘 맹준재 박금란 박운학 박재홍 박정아 백소망 백정애 서쌍원 서인아 서찬휘 손덕수 송주는 송현석 신상균 신수정 신은영 신재남 심용식 안해영 양호준 오건호 오수민 오화자 이길용 이미경 이보나 이원표 이은주 이정숙 이정환 이진규 이창현 이해경 임수덕 장수인 장현호 전경미 정근하 정유경 정택수 정희영 조수민 조희숙 차종찬 천정배 최선량 최준영 최현철 탁은지 한건희 홍정석 HARLFINGER OKPUN

〈 특별회원 〉

강예진 강정홍 고수민 곽주현 권리나 권태순 김미성 김병국 김서경 김영섭 김용진 김윤경 김하영 김현지 김혜지 박호현 김가현 나영우 남하윤 마혜민 문은영 박가은 박바리 박민수 박민지 박성현 박소연 박소율 박소준 박유림 박주영 박준영 박현지 오화종 서하민 손민성 손수연 송아람 신경호 신유진 신재민 신혜수 안기현 양동해 오경민 이기은 이민주 이상혁 이수민 이승현 이영훈 이유찬 이일영 이정은 이지원 장경훈 장해연 전진우 정범철 정성아 정수진 정원빈 조윤서 조은비 지우현 진숙희 차우수 최희라 황학수 현명우 홍윤기

♡ 단체 / 기업 회원 ♡

광복회 김예진목사기념회 김학규오광심기념사업회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대한요가 스포츠연맹 대한요가협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사월혁명회 서울시요가연합회 여천 흥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당이회영기념사업회 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인쇄출판새롬 전태일사이버노동대학 (주)에너지파트너 지광회 통일맞이 늦봄문익환목사기념사업회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민족평화통일연구소 해림교회 화윤차문화협동조합

(사)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와 함께하는 사람들

지 도 위 원	김삼웅 이덕일 임옥상 임현영 장유식 정동익
이 사 장	김희선
이 사	이상덕 신영숙 유승희 최성자 양혜경 강정숙 김수미 김애영 노명희 도승이 박정희 양미강 이은주 명 진
감 사	이승환 홍미영
기 획 위 원 회	위원장 / 위원 : 남상만 신영숙 양혜경 유승희 이승환
홍 보 위 원 회	위원장 : 노명희 / 위원 : 박정희
청 년 위 원 회	위원장 : 도승이 / 위원 : 김애영
문 화 기 획 위 원 회	위원장 : 양혜경 / 위원 : 김현숙 노영숙 이은주
항 일 여 성 편 집 위 원 회	위원장 : 김희선 / 위원 : 신영숙 노명희 도승이 최성자
사 무 국	박소리, 박건욱
광 주 전 남 지 회	회장 : 명진 / 부회장 : 박태균
항 일 여 성 독 립 운 동 연 구 소	소장 : 신영숙



• 주최·주관 (사)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 문의 02)924-0660

• 홈페이지 <http://www.herstorykorea.org>

• 후원  국가보훈처

• 이메일 herstory@herstorykorea.org